

여성적 글쓰기에 관하여

고갑희 | 여성문화이론연구소장

글쓰기와 관련해 모순이라 생각되는 것이 몇가지 있다. '저자의 죽음'을 논하지만 여전히 저작권은 유지된다는가, 생태계와 환경을 염려하는 글이 나무를 잘라 만든 종이를 통해 전달된다는가, 혹은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저서들이 출판자본을 통해 출간된다는 것 등이다. 글쓰기와 여성을 생각해 봐도 모순된 지점이 드러난다.

서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도 선비정신·작가정신은 어디까지나 남성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 정신세계였다. 그래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았다. 우리 역사 속에는 '공무도하가', '정읍사'를 지은 여인, 허난설헌·황진이·나혜석, 그리고 첩들의 시문 모음인 '삼호정시단(詩團)' 등 여성들이 있었다. 하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는 '울곧은' 선비정신도, 글로 정치에 들어가는 과거제도 모두 남자에게만 열린 세계였다.

한국의 90년대는 여성작가의 시대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지금도 '작가의 세계'는 남성의 세계임을 반증한다. 남성작가들에게는 '남성'이라는 단어를 붙여 작가라 하지 않는데, 여성들만 여전히 '여성작가'라는 한 묶음으로 불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논해지기 때문이다. '여류·여성' 작가의 구분은 있었지만 '남류·남성' 작가의 구분은 없었다. 그러니 앞으로 '여성'이라는 말을 붙일 때마다 '남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평등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을 주변화·'게토'화시키지만 동시에 여성을 주체로 만들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글쓰기의 장에서 여성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여성을 발굴하는 작업도, 또 여성작가의 생산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성'이라는 말을 둘러싼 모순지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소개·시도되는 '여성적 글쓰기'라는 개념을 놓고 과연 여성적 글쓰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여성적 글쓰기가 강조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러나 먼저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펜(pen 혹은 붓)이 페니스(penis)의 비유인 세계에서, 이것과는 다른 글쓰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계의 상징계는 "남근의 의미화 작용"에 의한 것이기에 공적인 글쓰기의 장에서는 음경이 남근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신체적인 음경이 대표 상징이 되어 남근 지배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감히 펜(이나 붓)을 드는 여자는 남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범자"였으며, 남성적인 '출산' 능력을 빼앗는 것이 되었다.

'여성적 글쓰기'란 여성의 몸을 통해 사유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음경/남근적 글쓰기와는 다른, 여성의 성적 차이를 상징하는 모유 혹은 여성의 성감대(온몸, 두음순)로 쓰는 글쓰기다. 이제까지 남성의 성기가 상징화되는 사회에 대항해, 여성의 육체를 글쓰기의 상징으로 삼아보겠다는 의도의 여성적 글쓰기 개념은 '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생물학적 환원론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러나 여성의 몸이 담고 있는 역사 혹은 체험에 의한 글쓰기라는 점에서 형식과 내용이 기존 글쓰기와는 달라질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제는 컴퓨터 자판을 통해 글을 쓰는 사이보그적 글쓰기가 성적 차이의 은유를 배제해 나가겠지만, 당분간 '여성' '여성적'이라는 말이 글쓰기에 계속 따라붙을 것 같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